

고용관련 애로, 원스톱 해결 협력체계 구축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용 활성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0일 전주고용센터에서 '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및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상시 협업 모델'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비즈니스지원단(전문 컨설턴트)을 매주 수요일 전주고용센터 내에 상주시켜 경영, 인사, 노무, 관로, 자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애로의 해결을 위해 중기부에 등록된 12개 분야(경영, 수출, 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0일 전주고용센터에서 '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 관로, 자금 마케팅 등)의 전문가를 갖춘 위원을 통해 단순 상담부터 심층상담까지 맞춤형 지원한다. 전주고용센터(기업도약보장패키지,

기업지원)는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을 위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고용은 한 축으로 맞물려 있어 기업과 고용을 연계·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전북지역중소벤처기업청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협업 수행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 등 복합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에게 이번 협력이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과 (주)LS엠트론은 19일, LS엠트론 전주공장에서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업 기술 현장 확산 '속도'

농진청·LS엠트론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회' 출범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과 (주)LS엠트론은 19일, LS엠트론 전주공장에서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2월 기간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3개월간 실무자 간 협의 끝에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양 기관은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회를 중심으로 농업 빅데이터,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현장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및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주)LS엠트론은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 기술을 상용화로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회 내 농업 빅데이터 분과는 필지별 기후 정보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활용해 농업 인공지능(AI) 단말형(온디바이스) 농기계 개발 농업 현장 중심 정보 기술(IT) 서비스 실증 트랙터 기반 종합 해결책(토털 솔루션) 개발 등을 전담한다.

노지스마트농업 분과는 자율작업 농기계를 비롯해 농기계·작업기 간 연결 기술 지능형 농기계 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들 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추진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분과별 협의를 거쳐 세부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LX,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념 컵홀더 지역 카페에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친환경 컵홀더를 제작해 지역 카페에 전달하는 지역 상생 이벤트를 시행했다.

LX공사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본사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내 카페 20여 곳에 친환경 컵홀더 4,000개를 전달했다.

컵홀더는 LX공사의 캐릭터 '랜디'가 202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응원과 지적측량 무료상담 등을 안내하는 콘셉트로 산뜻한 색감의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또한 컵홀더에는 지역 카페의 스티커, 스탬프 등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여 카페 홍보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LX공사 이주하 부사장은 "LX공사도 경영 위기에 있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며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미력하게나마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하림, 시장 안정화 위해 닭 공급 물량 늘린다

브라질산 닭 수입 중단 영향 제한적... 수급 안정·국내 농가 기반 보호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최근 발생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에 따른 시장 수급 불안에 안정적 수급 균형을 위해 닭 공급을 늘려 소비자와 농가 기반 보호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육란, 조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닭고기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 초 저병원성 AI, IB 등의 질병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증체 지연 및 사육 성적이 저조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닭 및 종란이 살처분된 것과 동시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육계 공급이 줄어 차질을 빚었다.

2024년 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18만 4,000톤가량이며, 그중에 브라질산은 158천 톤 약 86% 수준으로 국내 닭고기 도축 수수가 10억2,200만수(육용종계, 산란계 포함 전체)로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20% 수준이다.

브라질산의 비중으로 볼 때 수입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입육 업체에서 브라질산 대

체국으로 태국, 덴마크, 미국 등 기존에 닭고기 수입국에 수입 물량의 다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닭고기 계열 회사들 또한 수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림은 육계 공급 부족에 대한 닭고기 공급에 적극 협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량 확대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5~6월 육계 기준 전년 대비 105% 이상 7~8월에는 전년 대비 약 110% 이상의 공급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육계는 사육 기간이 짧아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중기중앙회, '2025년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공동사업 발굴, 제도 개선사항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위원회에는 이번엔 새로 위촉된 위원장인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올해 공동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현황 등 금년도 공동사업 지원실적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지원자금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신규 공동사업 발굴 및 기존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문식 공동사업위원장은 "올해 공동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14% 늘어나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공동사업지원 자금 규모가 2024년 말 기준 누적 15억원을 달성함에 따라 협동조합 자립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사업지원자금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출연을 확대하고, 업종별 신규 공동사업 제안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의한 사항들을 통해 각 산업별 협동조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전주농협, 20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주농협은 최근 전주농협 APC에서 '20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일정과 세부계획을 공유하여 사업을 본격 도모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농협 토양개량제(부산물로 갈습유황) 무상 지원 사업으로, 총 5,000포(총 30,000,000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지역 농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양 환경 개선 △작물 생육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 등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배, 복숭아, 양파, 호박(쭈기니) 공선회 및 작목반, △로컬푸드 출하농가 등이며, 단체별 출하 실적 기준 우선 배정 후 개인별 실적



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배분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특히 출하 실적이 높은 로컬푸드 농가, 공선회 소속 농가, 초과실적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은 APC유통센터와 모악창고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개별 배송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